

지역 소식통

고창군, 공공임대주택 입주 앞두고 현장 확인

고창군이 지역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앞두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점검 등 현장확인에 나섰다.

고창군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올해 128호, 고수면 황산에 150호, 무장면에 120호의 공공임대주택 398호를 공급,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이다.

고수면 황산마을 공공임대주택은 7월 준공에 9월 22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며, 무장면 10월, 올해 11월 순으로 올해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입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 광형별 주거약자용 주택 등을 방문했다. 주택의 규모, 스프링클러설치등의 주민 안전 단차별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했다.

고창을 옮겨 고향자 복지주택은 사용자에 비해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는 입주예정자 및 주변이웃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고창 방문의 해 특별이벤트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이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경품 특별이벤트를 연다. 선운산유스호스텔은 8월1일부터 숙박객 중 편의주식자를 대상으로 1객 실당 1회씩 경품 뽑기를 통해 고창사랑상품권과 지역 특산물을 제공한다.

총 2020명 대상으로 경품 소진시까지 진행한다. 평일 무료 숙박권 20명, 고창사랑상품권 1만원권 300매, 고창북을 일평공 500g 300포, 고창산 검정쌀 1kg 300포, 고창사랑 상품권 5000원권 1100매 등 총 15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선운산유스호스텔 주중 투숙객들을 위해 10%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고창사랑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창 주민은 해당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생물권보전지역 보고서 최종 서명

고창군, 유네스코 지정 10년 맞아 국제적 지위 유지 신청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10년을 맞아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적 지위 유지를 신청했다.

지난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정기보고서'에 최종 서명하고, 생물권보전지역 한국위원회(MAB한국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오는 9월 생물권보전지역 한국위원회에서 총회를 가진 뒤, 내년 7월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에서 검토 후 MAB국제조정위원회(MAB-ICC)에서 생물권보전지역 기준 충족 여부를 발표하게 된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정기보고서는



지정 10년의 성과를 담았다.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정이후, 많은 발전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등재, EAAC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고창갯벌'

등재, 람사르 습지 도시 국제 인증(운곡습지·고창갯벌), 인천강하구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2013년 5월29일 유네스코 MAB(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제조정위원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국제 최초 행정구역 전체가 등재되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생물권보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수소전기 저상버스 시승식

부안군, 8월부터 전국 최초 친환경 농어촌 버스 4대 첫 운행

부안군은 지난 31일 군청 광장에서 수소전기 저상버스 시승식을 갖고 오는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친환경 수소 전기 저상버스 4대를 농어촌 버스 노선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수소버스는 한번 충전으로 400km 이상을 운행할 수 있고 오염물질 없이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 버스이며 군은 그동안 이산화탄소 배출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해 온 농어촌 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전환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출입구 계단이 없고 실내 바닥 높이(상변지상고)가 낮은 저상버스로 장애인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 군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과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축과 부안형 수소도시 실현에도 한 발짝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친환경 수소전기 저상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과 군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서명운동 부안지역 주민 1만 8071명 동참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부안군수, 김재운 부산광역시청장)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전개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최종적으로 134만여명의 주민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부안 해뜰마루에서 열린 전국노래자랑, 제회 한국동시축제 등 관내에서 개최한 주요 축제 및 행사에서 서명부스를 마련해 운영하고,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유도했다.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부안군에서는 서명 목표인원 1만 3천

명의 139%에 달하는 1만8,071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는 부안군 인구가 4만9,817명(올해 6월말 기준)의 39%에 달하는 것으로 주민 10명 중 3~4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모습이다.

이율리 전국원전동맹의 각 지자체는 서명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동협력 해 원전동맹 지자체장,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 등 총 117명이 참여한 대대적인 사회관계망 서비스 도전 잇기(SNS 챌린지)를 추진한 바 있다.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이라는 목표를 한창 초과 달성해 134만 519명의 주민이 서명에 동참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공공배달앱 위메프 오 성공적 정착... 주문 1만 8000건 기록

정읍시, 전통시장관 신설... 8월 첫 주문고객 5000원 할인쿠폰·배달비 쿠폰 등 제공

정읍시가 8월 한 달 동안 정읍시 공공배달앱 소비자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민선 8기 정읍시의 핵심 공약인 정읍형 공공배달앱 '위메프 오'가 지난 5월 출시 이후 각종 할인 혜택으로 현재까지 1만8,000여건 이상의 주문 건수(매출액 4억6,000여만원)를 기록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공배달앱을 출시했던 지난 5월의 주문건수는 4,310건(매출액 1억550여만원)이었고, 6월에는 6,872건(매출액 1억7,100여만원)을 기록했다. 7월(23일 기준)에는 7,481건의

주문건수(매출액 1억8,700여만원)를 기록하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 호응에 힘입어 8월 한 달 동안 매일 1회 최대 3,000원까지 배달비 할인 쿠폰 8월 첫 구매자에게는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두 번째 주문 시 4,000원 페이백을 지급하는 소비자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시행한다.

특히 8월에는 전통시장 발전 위해 '위메프 오' 전통시장 상품을 묶음 배송할 수 있는 전통시장관을 개설했다. 시는 전통시장관 첫 주문고객에게 5,000원 할인쿠폰, 매일 1회 배달비

4,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전통시장관 특별 할인 이벤트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할인 이벤트와 별도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결제금액의 1%를 페이백 받을 수 있는 등 풍성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화수 시장은 "공공배달앱이 소비자 경기 악화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고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기센터, 씨 없는 수박 수확기 품질관리 당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올 여름 긴 장마로 인한 일조량 감소로 씨 없는 수박의 품질 저하와 병해충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재배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7월 25일 기준 정읍지역의 강수량은 673mm로 평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강우일수는 20일로 5일을 제외하고 비가 내려 일조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다.

씨 없는 수박은 고온 적응성이 강해 여름에 재배하기 적합한 품종인데, 긴 장마로 흐린 날씨가 지속되면서 지상부가 연약해지고 뿌리 활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강한 햇빛과 고온에 노출되면 잎의 수분 증산량이 증가해 급성 시들음증, 피수박(육질약편과), 잎소과(과실 햇볕 데임) 등의 생리장

해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시들음증상이 심해지면 수일 내 수박이 말라 죽을 수 있으므로 햇빛이 강한 날에는 시설 내 환기를 원활히 한 상태에서 하우스에 차광망을 씌우거나 2중 비닐로 상부만 덮어 식물체와 과실의 온도를 낮춰줘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지상부 생육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황산고토, 요소 등 엽면시비를 통해 영양을 두껍게 하고 적절한 수분공급으로 토양온도를 낮추면서 생육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요즘과 같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탄저병, 덩굴미름병, 역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약제를 예방 위주로 살포해줘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사랑상품권, 집중호우 피해 지원 15% 할인판매

고창군은 집중호우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고창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판매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별 할인판매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고창군에서는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할인인 만큼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8월 한달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된 고창사랑상품권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 매체로 자리 잡았다.

군은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수를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가맹점이 2,800개소에 이르며,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용하는 업체 대부분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고창사랑상품권이 원활하게 통용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일부 제한된다.

이율리 2023년 고창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고창음식, 고인물박물관, 선운사, 상하농원, 석정온천휴스파 등 방문객에게 입장료 일부를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면서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 등 관광객의 고창 상가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